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시교차적 메타분석, 1999-2022*

조 수 진¹⁾

박 혜 경[†]

본 연구에서는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통해 199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 부모들의 민주적인 양육 태도 증가,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수준 상승 및 한국의 개인주의화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했을 가능성과,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계층 이동 가능성의 감소 및 취업 시장 불안정성의 증가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였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판된 한국 대학생 대상 자기효능감 연구 293개(연구 참가자 수 총 88,904명)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기효능감 척도 세 가지를 사용한 연구, 연구 참가자가 한국 대학생들인 연구, 자기효능감을 1회 측정만 횡단 조사 연구 및 분석에 필요한 통계치를 제시한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199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및 동 시점의 사회적 지표들과 자기효능감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시점에서 출생률과 소비자 물가등락률은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국민총소득은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는 최초로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시교차적으로 분석하고, 시교차적 메타분석 기법의 적용과 다양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세대론을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방향을 논하였다.

주요어 : 자기효능감, 시교차적 메타분석, 한국 대학생, 출생률, 소비자 물가등락률, 국민총소득

* 본 연구는 제1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E-mail: hpark@sungshin.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국제 여론 조사 업체 입소스와 영국 킹스 칼리지 정책 연구소가 전세계 28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의 세대 갈등은 28개국 중 1위로(Duffy et al., 2021),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세대는 시대적으로 ‘운이 좋았던’ 40~50대가 자신들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며(조선일보, 2022), 기성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현 청년세대의 인내와 끈기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사람인, 2022). 이처럼 상충되는 세대 간 인식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세대 갈등이 앞으로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한국리서치, 2022). 이와 같은 세대 갈등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학문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연구에서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의해 타자로 설정되어 규정되어야 하는 해석의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가 없는 청년세대 담론이 생성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정효진, 2020). 또한 대다수의 연구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여러 세대의 자료를 횡단적으로 수집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세대 간 어떠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설진선, 김수연, 2020; 이병준 등, 2022; 정순돌 등, 2022; 한귀영, 2020).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표현(최대위, 2020)에 담긴 사고방식, 즉 자신의 청년 시절과 오늘날 청년세대를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대 갈등과 한국 경제의 황금기와 그 과실을 윗세대가 모두 향유했다고 생각하는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황선재, 2022)에서 비롯되는 세대 갈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각 세대의 청년 시기를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서

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젊은 세대로 대표되는 대학생과 기성세대 간에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경험의 차이를 가져왔다. 특히, 대학생들과 기성세대의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은 한국 사회의 인식과 신뢰에서의 세대 차이라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근대 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한광석, 2009). 또한, 2020년 기준 한국의 연령대별 고등 교육 이수자 비율은 55~64세 집단에서 25%, 45~54세 집단에서 46%, 35~44세 집단에서 66%, 그리고 25~34세 집단에서 70%인 것으로 나타나(OECD, 2021), 연령대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등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시적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 중 대학생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대 갈등의 주요한 원인은 서로의 행동에 대한 몰이해이다. 대표적으로, 기성세대는 청년세대가 왜 과거 자신에 비해 노력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청년세대는 기성세대가 왜 끊임없이 ‘노오력’만을 강조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청년세대와 현 청년세대의 행동 차이를 자기효능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Bandura, 1977), 행동을 예측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여겨져 왔다(Hasting & Brown, 2002). 또한,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의 선택, 목표 설정, 노력의 정도, 그리고 어려움과 좌절에 직면했

을 때 얼마나 오래 인내하는지에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ndura,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시적인 관점으로 모든 세대의 청년 시기 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한국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주목하였다.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닌 주관적 판단에 기반을 둔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심리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 모두와 관련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안녕감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혜자, 2020; 김경희, 김선희, 2016; 한장현, 2016; Magaletta & Oliver, 1999; Natovová & Chýlová, 2014; Siddiqui, 2015). 또한, 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김중경 등, 2020; Konaszewski et al., 2021), 창의성(김경은, 2011; Khalid & Zubair, 2014), 과업 수행(Judge et al., 2007) 및 성취 동기(Yusuf, 2011)와 정적으로 관련되며, 스트레스(문양호, 김완일, 2006; Schönfeld et al., 2016), 우울(고정미, 2014; 송미령 등, 2010; Soysa & Wilcomb, 2015) 및 사회불안(박효정, 박주희, 2015)과는 부적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 그리고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등(Bandura, 1982)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이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먼저, 대학생들은 발달 단계상 성인 초기 전환기 혹은 성인 진입기에 해당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으며(Arnett, 2007; Levinson, 1977), 성인 초기라는 긴 발달 기간에 들어서서 처음 해보는 과제를 성취해 나가는 ‘첫 경험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이나영, 유지영, 2019). 전통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직업·이념적 성장에 전념하며 하나의 시민이 되는 것과 같은 성인의 과업에 직면함과 동시에 사회와 호혜적인 관계를 확립하게 된다(Erikson, 1956, 1994). 또한, 보편적으로 대학생들은 경제적 독립, 친밀한 관계 형성, 학업 수행, 배우자 탐색, 진로 결정,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발달 과업을 성취해야 한다고 여겨진다(Arnett, 2000; Erikson, 1968; Shiner & Masten, 2002).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적 독립이 늦어짐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개별화와 자율성의 획득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장휘숙, 2008), 어른들과 동료들의 지지와 수용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청소년기나(연문희, 1985) 개인적 성취보다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는 중년기(황영아, 2018)에 비해 성인 초기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과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달 과업들을 제 시기에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발달 단계 전환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미래의 과업에 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연문희, 1985),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진로 결정 및 취업난(김성경, 2003)으로 인한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서인균, 이연실, 2015)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김용준, 윤천성, 2016; 유은주 등, 2013), 정서적 불안과 어려움을 유

발하는 대학생 생활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여(이재명, 2009; Elias et al., 2010; Morton et al., 2014; Sim & Moon, 2015), 대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노지영 등, 2012; 문미영, 2020),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며(문태형, 2013), 진로 의사 결정을 수월하게 하여(박동영, 2010), 경제적 독립, 친밀한 관계 형성, 학업 수행, 배우자 탐색, 진로 결정, 정체감 형성과 같은 발달 과업(Arnett, 2000; Erikson, 1968; Shiner & Masten, 2002)을 성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시교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대학생들의 삶의 특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사후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아가, 자기효능감이 발달 과업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학생 시기의 발달 과업 성취는 10년 후의 발달 과업 성취와 정적으로 관련되며(Roisman et al., 2004), 과업 달성의 실패는 미래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Engels et al., 2021)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사회환경적 요인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자기효능감 수준은 자신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긍정적이고(Achterkamp et al., 2015; Kavanagh & Bower, 1985; Saligumba & Tan,

2018), 과거에 스스로 성취한 경험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수행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Bandura et al., 1982; Saligumba & Tan, 2018), 그리고 자아가 고갈되지 않았고(Chow et al., 2015), 롤 모델에게 호감을 느끼며(Lavolette et al., 2010), 언어적 설득이 존재하는 경우(Saligumba & Tan, 2018; Wright et al., 2016) 증가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등 개인 내적 및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개인이 속한 문화와 처한 상황이 자기효능감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인식이 목표와 행동을 형성하게 된다(Wuepper & Lybbert, 2017)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환경적 변화와 자기효능감 수준의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자기효능감에 미쳤을 잠재적인 영향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1999~2022년 한국 사회에서 자기효능감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한 이후 생존 중심의 신자유주의 문화를 맞이하였다(김홍중, 2009). 2000년대에는 각종 국내 드라마의 수출과 2002 FIFA 월드컵 개최로 문화 산업이 부흥하여 큰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렸으며(이기형, 2000; 장후석, 2002; 한은경, 2005),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에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조선, 철강 등 전통산업을 비롯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과 같은 신산업 부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송위진, 2009). 2010년대부터는 중산층 붕괴 현상이 나타나며 신(新) 계급사회, 신(新) 신분사회가 도래함에 따라(한송희, 2019) 자기 비판과 사회

비판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은 압축성장 국가이기 때문에(김영명, 2011), 개인의 자기효능감 또한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22년 사이의 사회 변화로 인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했을 가능성과 감소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시간에 따라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변화하였다. 1990년 중반부터 한국에 등장한 세계화 담론은 2000년대에 한국의 대표적인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다(이기라, 2021). 이러한 사회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와 통제를 강조하던 태도에서 자녀의 욕구와 의견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양육 태도가 변화하였다(Park & Kwon, 2009). 선행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허용적 양육방식 수준은 중국보다 높았으며(Linyan et al., 2019), 한국 부모들이 유럽계 백인 부모들보다 더 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Yi et al., 2013). 민주적인 양육 태도는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반면(Masud et al., 2016),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부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손강숙, 주영아, 2015), 시간에 따라 변화한 양육 태도와 함께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 또한 증가했을 수 있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수준이 증가하였다.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지위에 대해 집착하는 웅장한 자기상을 의미하며(Bushman &

Baumeister, 1998; Raskin et al., 1991),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된다(Brender-Ilan & Sheaffer, 2019; Brookes, 2015).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6년 동안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이선경 등,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효능감 수준도 함께 증가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셋째, 개인주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과거 한국은 전 세계 50개 국가 중 개인주의 순위에서 43위를 차지하며(Hofstede, 2001)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한국의 개인주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 증거가 존재한다. 우선, 1997년 IMF 이후 고도로 협력적이고 집단주의적인 태도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요구하는 세계 시장의 요구와 양립할 수 없었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시장 메커니즘의 활력을 극대화하며, 국민들의 증가하는 개인주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하였다(Lee & McNulty, 2003). 또한,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의 대중음악 가사를 통해 시간에 따른 한국인들의 문화성향 변화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곡의 발매 연대가 1980년대에서 201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가사에 개인주의 문화권의 이상적 정서가 집단주의 문화권의 이상적 정서보다 자주 표현되었으며,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 수준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하였다(이인영, 박혜경, 2020). 더불어, 6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수직적 개인주의, 즉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고, 자신의 독특성과 개성에 주목하며, 자신이 타인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향

(남희은 등, 2014)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사이언스,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이 모두 개인주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개인주의 성향이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라미진, 2022), 개인주의 수준의 증가로 인해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도 함께 증가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와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감소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에는 가구의 순자산 불평등이 개선되었으나, 이후 꾸준히 악화되었다(권일, 김미애, 2021). 가구의 순자산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결되는데, 대학생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존감과 열등감을 내면화하며, 수업, 친구 관계, 교내외 활동, 진로 계획 등 대학 생활 전반에서 차별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란, 2014).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기효능감 수준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우석, 2015; Han et al., 2015).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함에 따라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감소했을 수 있다.

둘째, 계층 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2015년부터 등장한 수저계급론, 헬조선, 탈조선 등 열심히 노력해도 불만족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들이(김환, 임진희, 2017) 최근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지각한다는 증거이다. 또한, 세대 내와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6년에 각각 46.7%와 29%였으나, 이후 점점 증가하여 2017

년에는 각각 65%와 54.4%에 육박하였다(통계청, 2017). 이를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인들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더 비관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층 이동 가능성은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생각에 근거한다(이용관, 2018). 과거에는 대학 교육 경험이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대학 진학률이 70~80%에 이르게 되면서 1990년대 이후 대학 진학을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안정적인 통로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김미란, 2014).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노력해도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을 수 없고, 풍족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시간에 따라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취업 시장이 과거보다 불안정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는 7.5%였던 청년 실업률이 2010년대 중반부터 9%대에 진입하여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COVID-19 팬데믹 후기에 접어들며 감소하였다(통계청, 2023).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업률의 증가와 감소 폭이 커지는 것은 취업 시장이 과거에 비해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단서일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 중 82.9%가 취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한국일보, 2017),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승혜, 이해영, 2013). 대졸자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는 동질적인 노동자들이 많아졌으나(홍기석, 2018), 고소득 일자리의 비중은 감소하고 소득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김주현 등, 2013), 대학생들의 취업난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많은 대학생들이 입시 경쟁 끝에 대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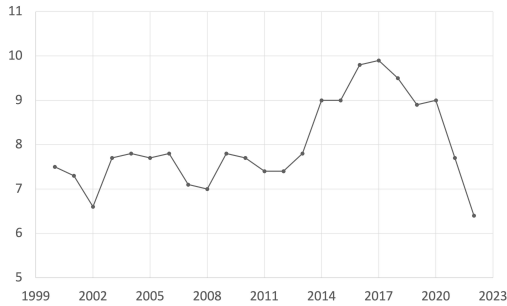


그림 1. 2000~2022년 20~29세 실업률의 추이

입학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막막함, 등록금과 물가 상승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심각한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김의연, 유효숙, 2018). 이러한 상황은 취업 및 진로 결정이라는 중요한 발달적 과업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을 포기하는 ‘포기세대’를 자처하게 만들었다(안홍순, 2016). 종합하면,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에는 가혹한 현 상황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성인 진입기에는 개인적 가치인 주체성과 집단적 가치인 공동체성에 대한 주목도가 동시에 현저해진다(Arnett et al., 2001). 이때, 주체성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반면(Sousa et al., 2012), 공동체성은 자기효능감과 부적으로 관련되므로(Klassen, 2004), 이와 같은 성인 진입기의 양면적 특성은 자기효능감의 증가 및 감소와 모두 관련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시교차적 메타분석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교차적

메타분석(cross-temporal meta-analysis)을 실시해야 한다.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시간에 따른 효과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Twenge (1997a)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 기법은 해외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시간에 따른 미국 대학생들의 남성성과 여성성 수준의 변화(Twenge, 1997a),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중국 대학생들의 성격 특성 변화(Peng & Luo, 2021), 시간에 따른 미국 성인들의 성 고정관념의 변화(Eagly et al., 2020) 등 다양한 주제에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선경과 동료들(2014)이 최초로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추이를 밝혔고, Park 등(2016)이 시간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목표 지향성 변화 추이에 대해 연구한 것이 전부이다.

세대 차이에 관한 연구는 APC 효과로 일컬어지는 연령(age effects), 시대(period effects) 및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s)의 상대적 영향을 분리해야 한다. 우선, 연령 효과는 성숙, 발달 단계 혹은 발달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대와 무관한 개인의 생태학적 혹은 사회적 기반의 변화를 말한다. 시대 효과는 해당 시대에 속한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역사적 시대와 관련된 개인의 변화를 말한다. 끝으로, 코호트 효과는 출생 연도 혹은 출생 연도 집단에 기초한 개인 간 동질성을 말한다. 이때,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시대와 코호트의 효과가 혼동되는 문제가 있다(Costanza et al., 2017). 따라서, 시교차적 메타분석에서 한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준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 특성이 다른 연령 집단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시교차적 메타분석과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관찰된 차이의 타당하고 가능성이 높은 원인

이 코호트라고 가정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코호트 효과를 추정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Twenge et al., 2008). 한편, 연령과 시대, 그리고 코호트 효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영향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Rudolph et al., 2020),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세대 관련 기존 연구 결과들이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를 분리하지 못했던 한계를(이내영, 정한울, 2013)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해석이 용이하고(Rudolph et al., 2020), 시간에 따른 심리적 변인의 변화와 사회문화적인 요인과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회심리학이 역사적 상황과 시간의 변화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해야 한다는 Gergen(1973)의 주장에 걸맞은 장점을 가진다(Twenge, 1997b). 이러한 장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코호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개관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세대의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 수준으로 대변되는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각 세대의 대학생들 간에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함과 동시에 세대론을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아가, 시간에 따라 자기효능감 수준이 유의하게 변화한 경우, 이러한 변화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되는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효능감 수준의 유의한 변화가 관

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에 포함된 모든 세대가 대학생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고유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 법

자료 검색

본 연구에서는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한 국내 학술지 논문들을 수집하였다. 논문 검색에는 구글 학술 검색(Google Scholar),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Korea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DBpia, 교보문고 스콜라, 국회도서관 웹사이트, 연구자들의 소속 대학 도서관 웹사이트,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을 이용하였다. 검색어로는 ‘자기효능감’과 ‘효능감’을 사용하였다.

대상 연구 선정 기준

진술한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자료 선정 기준에 따라 분석에 포함될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메타분석을 위해 충분한 양의 자료를 확보하고, 잠재적으로 척도 간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herer와 동료들(1982), 홍혜영(1995) 및 김아영(1997)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포함시킨 연구만

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Sherer와 동료들(1982)의 척도는 총 23문항의 척도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17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홍혜영(1995)의 척도는 Sherer와 동료들(1982)의 척도를 타당화한 것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17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김아영(1997)의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자신감을 측정하는 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을 측정하는 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척도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척도를 동시에 사용한 연구들은 제외하고, 원칙도가 Sherer와 동료들(1982), 홍혜영(1995) 및 김아영(1997)인 경우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Sherer와 동료들(1982)의 척도를 사용한 논문 76편, 김아영(1997)의 척도를 사용한 논문 86편, 그리고 홍혜영(1995)의 척도를 사용한 논문 131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둘째, 연구 참가자가 한국 대학생들이 연구만을 선택하였다. 대학생 집단과 대학생이 아닌 집단들을 동시에 연구한 경우, 대학생의 결과를 다른 집단과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는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대학생 집단과 비대학생 집단의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제시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연령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과 기타 양성 기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에 따른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자기효능감을 횡단적으로 1회 측정한 조사 연구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사전-사후 설계와 통제-비교 설계를 채택

한 연구들과 실험 연구 및 중단 연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분석에 필요한 통계치를 제시한 연구만을 포함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의 평균, 표준 편차 및 연구 참가자 수를 제시한 연구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개별 연구 평가 및 자료 추출

우선, 평정자들이 코딩 양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수집된 연구들 중 10%를 무선 추출하여 예비 코딩을 진행하였다. 코딩 항목은 논문 제목, 저자명, 출판 연도, 측정 도구, 사례 수, 하위 집단, 평균, 표준 편차 및 신뢰도였다. 예비 코딩 결과 평정자 간 합치도는 .92로,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에 따르면 거의 완벽(almost perfect) 것으로 나타나 본 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코딩에서는 최종 선정된 연구들을 무선적으로 반으로 나누어 각각 두 명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코딩하였으며, 불일치는 논의를 통해 해소하였다.

가중회귀분석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일반 메타분석과 달리 효과 크기를 계산하지 않는다. 대신, 가중회귀분석을 통해 목표 변수의 평균 점수와 출판 연도 간의 상관을 살펴본다. 이때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구의 참가자 수에 따라 평균에 가중치를 부여한다(Twenge et al., 2008).

자기효능감 점수의 변화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가중회귀분석과 각 연구의 표준 편차를 사용하였다. 특정 연도(X)의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Y)를 계산하기 위하여 $Y = bX + c$ 형태

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b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c는 상수를 의미한다. 또한 가중회귀분석을 위하여 출판 연도를 독립 변수,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를 종속 변수, 그리고 연구 참가자 수를 가중값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개별 연구의 평균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 측정에 사용된 척도의 범위가 4점, 10점 등으로 연구마다 달랐기 때문에 개별 연구의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따라서 추후 언급되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를 의미한다. 이때 분석 결과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효능감 수준이 유의하게 변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에는 SPSS 26을 사용하였다.

결 과

자료 수집 및 처리 결과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최초로 발견한 문헌은 652편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복되는 문헌 4편을 제외한 후 648편의 문헌이 남았다. 648편의 문헌 중 Sherer와 동료들(1982), 홍혜영(1995) 및 김아영(1997)의 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216편의 문헌을 제외한 후, 남은 432편의 문헌 중 횡단 조사연구 설계가 아닌 문헌 49편과 대학생 대상 연구가 아닌 문헌 9편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끝으로 374편의 문헌 중 분석에 필요한 통계치(평균, 표준 편차 및 사례 수)를 제시하지 않은 문헌 81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293편의 논문이 시교차적 메타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연구 참가자는 총

88,904명이었다. 국내에서 자기효능감에 관한 논문은 1979년에 최초로 출판되어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1999년에 출판된 논문부터 분석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is) check list; Page et al., 2020)에서 제안한 흐름도에 따라 정리한 것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해당 흐름도는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비롯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자료의 포함 및 제외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다.

최종 선정된 논문 293편을 무선적으로 두 묶음으로 나누어 자료 1과 자료 2로 구분한 후 각 자료당 두 명의 코더가 독립적으로 코딩을 실시하였다. 평정자 간 합치도를 평가하기 위해 Cohen의 Kappa 계수를 계산하고,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에 따라 계수를 해석하였다. 합치도는 자료 1이 .97, 자료 2가 .91로,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에 따르면 완벽한 일치도(almost perfect)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평정자의 평정 결과가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

출판 연도와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에 관한 가중회귀분석

척도의 범위가 연구마다 달랐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개별 연구의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하였다.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판 연도가 자기효능감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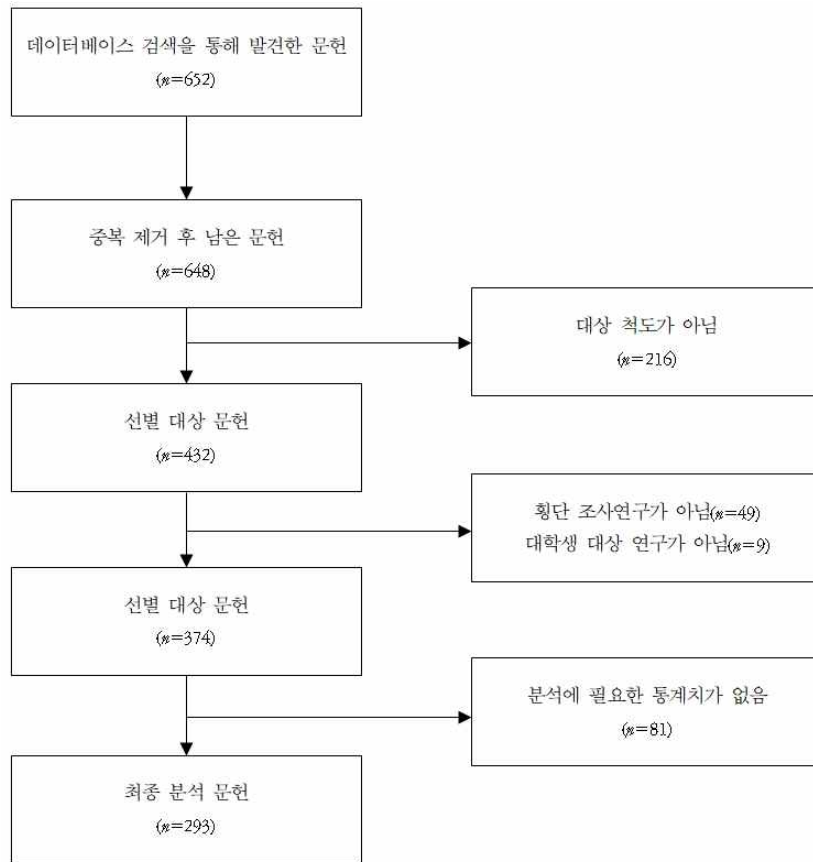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시교차적 메타분석의 PRISMA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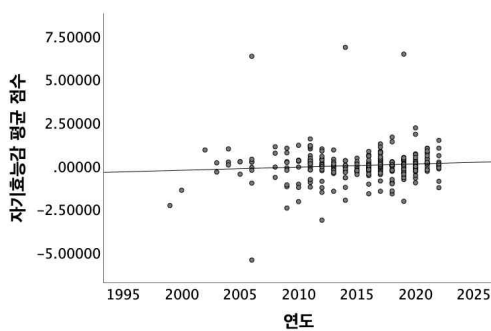


그림 3. 출판 연도에 따른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점수 변화 추이

($\beta = .023, p = .058, k = 293$). 즉, 1999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와 사회적 지표들에 관한 상관 분석

가중회귀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이 시간에 걸쳐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생각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

수준과 다양한 시점의 사회적 지표들 간에 상관을 분석하였다. 시교차적 메타분석의 핵심 변수와 사회적 지표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 보았던 선행 연구들(Twenge & Campbell, 2001; Xin et al., 2010; Yuan et al., 2022)의 방식을 참고하여, 잠재적으로 자기효능감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지는 지표들 가운데 분석 대상 기간의 자료가 모두 확보된 출생률, 소비자 물가등락률 및 국민 총소득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기효능감과 각 사회적 지표와의 관련성은 아래와 같이 추론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산업화 및 근대화 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홍찬숙, 2013). 이는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과제로서 출산 억제 정책을 도입하고 강력한 가족 계획 사업을 실행한 것과 관련되는데, 국민소득과 교육 수준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출생률이 급격하게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이삼식, 2006). 한편, 자녀 양육에 있어서 권위보다 자율성을 선호하는 민주적 양육 태도는 세계화와 경제 발전에 따라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정선영, 2021), 출생률의 감소와 민주적 양육 태도의 증가 간에 경제적 성장이라는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적인 양육 태도는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Hayek et al., 2022; Masud et al., 2016; Tam et al., 2012), 출생률과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출생률은 개인주의의 지표 중 하나로, 개인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출생률이 낮다(Åm, 2020; Dohi et al., 2008). 한국의 개인주의 수준은 증가하는 추세이고(이인영, 박혜경, 2020; Lee & McNulty, 2003), 개인주의 수준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되므

로(라미진, 2022; Kononovas & Dallas, 2009; Kumar & Uz Kurt, 2011; Scholz et al., 2002), 출생률이 감소했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등락률은 물가지수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을 말하는데, 여기서 등락률은 기준 시점에 대한 비교 시점의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의미한다. 소비자 물가등락률은 물가의 양방향적 변동성을 모두 반영하지만, 실생활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게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소비자 물가등락률은 국내외 경제 사정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급상승한 이후 1980년대 초반 물가 안정 정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다시 급상승하였으나, 1998년 이후로는 2%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1). 그런데 외환 위기 이전에 2%대였던 실업률이 외환 위기 이후 8%대로 상승했던 점(신관호 등, 2001)과 2023년 1월, 상승하는 물가에 취업난이 악화하여 경제고통지수가 치솟았다는 보고에 따르면(김영대, 김다혜, 2023), 물가등락률의 증가가 실업률과 정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높은 실업률은 취업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취업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부적으로 관련되므로(고경필, 심미영, 2015; 장은주, 이숙정, 2016), 소비자 물가등락률은 자기효능감과 부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이 약 2세기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를 반세기만에 이뤄냈으며(임현진, 2005), 근대화 에 따라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박재완, 2017), 개인주의가 심화되었다(박승관, 2003). 이러한 변화는 근대화

및 산업화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긴밀한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주의와 같은 근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마련된다는 근대화 가설(modernization hypothesis)에 부합한다(Kashima & Foddy, 2002). 이처럼 경제적인 측면의 성장이 개인주의로의 변화를 견인한다면, 경제적인 성장을 반영하는 국민총소득은 개인주의 수준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며, 더 나아가 개인주의 수준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자기효능감(라미진, 2022; Kononovas & Dallas, 2009; Kumar & Uz Kurt, 2011; Scholz, Doña, Sud & Schwarzer, 2002)과도 정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회적 지표들에 대한 분석은 선행 연구들(Xin et al., 2010; Yuan et al., 2022)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구 참가자들의 출생 시기를 고려하여 메타분석 자료가 수집되기 20년 전 자료, 15년 전 자료, 10년 전 자료, 5년 전 자료 및 동 시점 자료로 구분하여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와 짝지었다. 구체적으로, 20년 전 자료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인 1999년부터 2022년으로부터 20년 전인 1979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료를 의미하며, 15년 전 자료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1999~2022년의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를 1979~2002년, 1984~2007년, 1989~2012년, 1994~2017년 및 1999~2022년의

사회적 지표 점수들과 짝지어 분석하였다. 이처럼 시차를 두고 상관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과거의 사회환경적 변화들과 관련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분석 결과, 시차의 여부 및 시차의 크기와 관계 없이 출생률과 소비자 물가등락률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표 1). 이는 출생률과 물가등락률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민총소득은 시차의 여부 및 시차의 크기와 관계 없이 모든 시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국민총소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았다. 즉, 대학생들의 출생 시부터 성장기 동안의 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자기효능감과 짝지어 분석하였을 때 예상과 일치하는 연관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표 1.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표들 간의 상관 계수

사회적 지표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동 시점
출생률	-.083 ^{***}	-.040 ^{**}	-.344 ^{***}	-.198 ^{***}	-.167 ^{***}
소비가 물가등락률	-.275 ^{***}	-.165 ^{***}	-.204 ^{***}	-.172 ^{***}	-.326 ^{***}
국민 총소득	.343 ^{***}	.093 ^{***}	.309 ^{***}	.193 ^{***}	.302 ^{***}

*** $p < .001$, ** $p < .01$.

서 예상과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분석 대상 기간이 짧았던 데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었던 선행 시교차적 메타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자료를 분석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안과 신경증에 대한 시교차적 메타분석 연구(Twenge, 2000)의 분석 대상 기간은 42년, 젊은 성인들의 삶의 목표, 타인에 대한 관심 및 시민 지향성에 대한 시교차적 메타분석 연구(Twenge et al., 2012)의 분석 대상 기간은 44년이었으며, 지위와 역할에 따른 여성의 자기주장 변화에 대한 시교차적 메타분석 연구(Twenge, 2001)의 분석 대상 기간은 63년이였다. 반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4년으로 비교적 짧아,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히 길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간과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비선형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가중회귀분석은 선형 함수에 기반하므로, 만일 시간과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비선형적이었다면 둘의 유의한 관계를 포착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더불어, 199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은 X세대와 MZ세대로, 모두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이세진, 2010; 전대근, 2020), 각각 과거와 현재의 소비주체로서 자기 표현적인 소비를 지향하며(이민하, 2023; 이세진, 2010),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김수정, 2022; 손정희 등, 2021) 등 비슷한 세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몇 년 간 지속되고 있는 90년대 스타일의 뉴트로, 레트로 열풍은 X세대가 향유한 문화

와 MZ세대의 트렌딩 능력이 결합된 결과로, 서로 다른 두 세대가 문화와 사상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강승혜, 2021). 그러므로, 세대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보다 긴 기간을 다룰 수 있었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의한 변화 패턴을 포착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적 지표들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유의할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모든 시점의 출생률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출생률은 전형적으로 산업화 및 경제적 발전과 관련되는 지표로, 과거 한국은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따른 산아 제한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서 탈피한 바 있다(이만중, 2006). 동아시아 국가의 출생률은 산업화 및 경제적 발전과 관련되는데, 사회 발전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시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 연인들이 핵가족을 형성하며, 양육의 질 및 학업과 고용에서의 자녀의 경쟁력에 주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g, 2020). 한편, 본 연구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한 첫 세대로, 교육을 매우 중시하여(김우성, 허은정, 2007), 다른 세대에 비해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허은정, 김우성, 2003). 종합하면,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가족 체계가 변화하여 양육의 질에 초점을 맞추게 됨에 따라 자녀 교육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처럼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교육의 기회와 질이 증가한 것이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자기효능감 수준의 증가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모든 시점의 소비자 물가등락률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소비자 물가등락률은 석유 파동, 외환 위기, IT경기 호조 등 국내외 경제적 이슈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 변동과 관련되는 지표로(통계청, 2021), 소비자 물가등락률이 낮을수록 국가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물가가 상승하여 물가등락률이 증가할수록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어 취업난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신우리 등, 2020), 물가등락률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부적적으로 관련되므로(박윤미, 양지인, 2019), 물가등락률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을 수 있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모든 시점의 국민총소득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국민총소득은 웰빙의 경제적 기초를 보여주는 지표로, 한국의 학생 및 성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적 요인(박영신, 김의철, 2006)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소비와 후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국가지표체계, 2023). 동시에 국민총소득은 자본

주의의 산물로서,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이자 근대 사회의 개인화를 야기한 개인주의(Elliott & Lemert, 2006)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한국 사회의 개인주의 수준이 상승하고 있으며(이인영, 박혜경, 2020; Lee & McNulty, 2003), 개인주의 성향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되므로(라미진, 2022), 국민총소득이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과 15년 전 국민 총소득과의 상관($r = .093$) 대 자기효능감과 10년 전 국민 총소득과의 상관($r = .309$) 간 편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국민 총소득은 15년 전 지표(1984~2007년)와 10년 전 지표(1989~2012년) 모두 선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 그러나 15년 전 지표에는 IMF 이후 11년의 기간이 포함된 것에 반해 10년 전 지표에는 IMF 이후 16년의 기간이 포함된다. 즉, 10년 전 지표는 15년 전 지표보다 경제 회복 및 성장에 따라 국민 총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15년 전 지표에 비해 10년 전 지표에서 국민 총소득의 증가 폭이 더 크고 증가 추세가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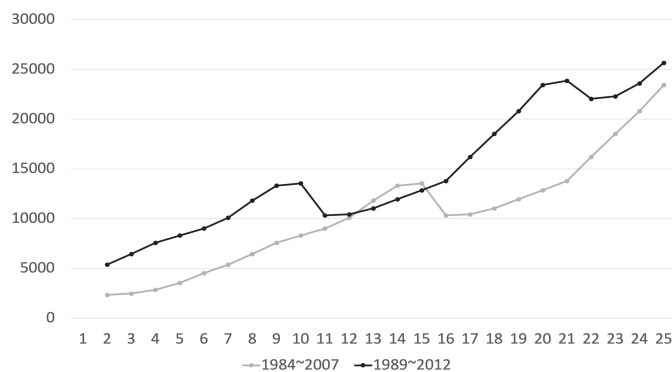


그림 4. 1984~2007년과 1989~2012년의 국민 총소득 추이

전 지표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더 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처럼 상당 기간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효능감과의 상관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구간들을 대상으로 그 차이의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시차를 두고 사회적 지표들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과거의 사회적 변화와 자기효능감 수준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전반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거시적인 사회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암시하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더 정교하게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데 복합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기효능감의 형성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초로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시교차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자기효능감은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지난 24년간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유의하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추가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그들의 삶의 복잡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시교차적 메타분석 기법의 적용과 다양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국내에서 최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상세한 방법 기술은 시교차적 메타분석 기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의 많은 세대 관련 선행 연구들과 달리 동일한 발달 단계를 이행하는 서로 다른 세대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세대 차이가 각 연령 집단의 고유한 세대 특성이 아닌 발달 단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후속 연구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래 자기효능감 수준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것인지 혹은 발달 단계에 따라 수준이 변화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세대론을 간접적으로 검증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오늘날 매체에서 'MZ세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각 세대의 존재와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대에 관한 이와 같은 관심과 묘사는 각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세대 구분이 세대 차이를 과장하고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한다(박재홍, 2009). 또한, 세대라는 개념이 일부 집단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을 전체 연령 집단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거나, 일시적인 유행을 특정 세대의

공통된 현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전상진, 2002)는 지적은 세대 혹은 세대 차이가 진정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적어도 자기효능감의 측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22년 사이에 대학생 신분이었던 사람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음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세대론이 과장되었다는 시각과 맥을 같이한다. 세대 간의 공통점에 대한 단서는 세대 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세대 통합은 세대 갈등의 완화와 세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원영희, 한정란, 2019), 본 연구는 사회적인 의의를 지닌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이나 자기효능감의 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가외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자기효능감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나 연구 참가자들의 특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세 가지 척도 모두에서 시간에 따른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분석에 포함된 293개 연구 중 약 절반이 보건·간호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므로, 전체 자료를 보건·간호 계열 및 비보건·간호 계열 대학생 대상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두 전공 계열 모두에서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가 측정에 사용된 척도나 연구 참가자들의 전공 특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추가 분석 과정에서 배제되기는 하였으나, 이외에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서우석, 2015; Han et al., 2015)와 성별(강혜자, 2011)과 같은 변인들

이 자기효능감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가외 변인들을 측정하여 하위집단 간 차이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거나 통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자기효능감의 증가나 감소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 내에서 인과적 영향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즉, 시교차적 메타분석의 방법론적 특성으로 인해 어떠한 요인이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포착할 수 없었던 데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던 요인들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효능감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적으로 관련되므로(Gurin et al., 1978), 자원 배분을 달리하여 사회계층을 조작하거나, 성취 경험이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므로(Bandura et al., 1982), 과제 수행 과정에서 성취 여부를 조작하는 방식과 같이 사회문화적 요인의 조작에 따른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는 실험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 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우선,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의 시간적 범위가 좁아 일반화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선행 연구 논문 출판 시기는 정해져 있으므로 1990년대 이전 대학생들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향후 충분한 연구 결과가 축적된 후 다시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수행한다면 더 넓은 시기의 대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더 길고, 사회문화적으로 한국과 공통점을 지닌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들을 대상으로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실시한다면,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덧붙여,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되는데(Aguayo et al., 2011; Wang et al., 2023), 교육 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Adler et al., 2000). 그러므로 2000년대 초반까지의 대학 진학률이 50%였던 데 비하여 오늘날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는다는 점은(e-나라지표, 2022)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 교육 기회의 획득에 큰 영향을 미쳐 상류층이 주로 대학에 진학했던(박병량, 1984) 과거와 달리, 오늘날 대학 진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쉬운 선택지'나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것(서재영, 한은정, 2022)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대학생들은 오늘날의 대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연령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대학생 집단의 객관적·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동했을 수 있고, 이것이 자기효능감의 변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는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한 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방법론적 한계로 일반적인 메타분석과 달리 시교차적 메타분석에는 출판 편향을 검증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정립된 기준에 따라 총 293개라는 상당히 많은 수의 연구를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여전히 출판 편향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에 포함되는 척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학위 논문 등 출판되지 않은 연구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출판 편향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세대의 구분은 각 집단의 공통점이 아닌 차이점을 강조하게 마련이다. 연령 집단 간의 갈등이 첨예한 오늘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완화할 단초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유사성은 세대 간 공감의 발판이 되어 공동의 내집단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하위집단 간 갈등에 대해 고찰하고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숙, 고영숙 (2016).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의료커뮤니케이션*, 11(2), 179-189.
- 강경아, 조혜영 (201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3), 210-218.
- 강부자, 최연실 (2016).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3(3),

- 71-90.
- 강선모 (2013). 부모화와 안녕감의 구조관계 분석: 수치심,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6), 3409-3431.
- 강소영 (2009). 간호, 보건계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성향 및 능력간의 관계. *병원경영학회지*, 14(3), 49-66.
- 강승혜 (2021). 데이터 세대론: MZ + X. *한국 PR학회 학술대회*, 2020(11), 83-84.
- 강영숙 (2017). 간호여대생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7), 300-309.
- 강현경 (2015). 일부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의 봉사활동 특성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0), 6688-6697.
- 강혜승, 김윤영 (2017).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5), 617-625.
- 강혜승, 김윤영, 이홍선 (2018).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3), 389-398.
- 강혜연 (2017).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5, 77-95.
- 강혜영 (2011). 이공계 대학생의 흥미-전공일치도, 자기효능감과 전공적응도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2(1), 115-127.
- 강혜자 (2011). 지연행동,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및 지각된 스트레스 간의 관계. *지역과세계*, 35(2), 233-251.
- 강혜자 (2020).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내외통제 및 주관안녕간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8(4), 461-467.
- 고경필, 심미영 (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19-38.
- 고경필, 심미영 (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6), 379-391.
- 고두희, 원주연 (2020).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건강성의 관계: 학습몰입과 교양체육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693-715.
- 고정미 (2014). 여성노인의 세대 간 사회적 지원교환과 자기효능감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4), 277-286.
- 고정은 (2003).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1(2), 97-106.
- 고정은 (2004).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가간호역량 및 건강증진행위.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2(2), 73-84.
- 고호빈 (2018).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3), 79-91.
- 곽윤영, 정문자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21-141.
- 곽혜원, 황성우 (2017).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비교: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과와 4년제 간호학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239-

- 249.
- 구민경 (2018). 간호대학생의 양생(養生)에 미치는 영향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1-18.
- 권현영, 임형석 (2013).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 311-321.
- 국가지표체계 (2023.04.20.). 1인당 국민총소득 [데이터 세트].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1>
- 권영은, 김선영 (2018).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1), 80-88.
- 권일, 김미애 (2021).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103), 1-94.
- 김경선, 이지원 (1999). 여대생 흡연과 환경적 요인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6(2), 185-197.
- 김경옥 (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경옥, 조윤희 (2011).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4), 197-218.
- 김경은 (2011). 예비유아교사의 정서, 경험에의 개방성 및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18(1), 1-18.
- 김경희 (2021). 보건계열 대학생의 우울,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46(4), 435-441.
- 김경희, 김선희 (2016).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289-300.
- 김남희, 김경원 (201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 보건의료산업학회지, 5(4), 41-51.
- 김남희, 박선영 (2019).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215-230.
- 김덕진, 이정섭 (2014).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244-254.
- 김동준, 이성규 (2016).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2(4), 231-255.
- 김명숙 (2011).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2), 159-167.
- 김명아, 이경현, 박혜자, 김은정, 이일현 (2016).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합리적 신념,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 적응: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자료분석학회, 18(2), 1163-1178.
- 김미경 (2014). 여대생의 퍼스널 이미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패션 비즈니스, 18(1), 37-49.
- 김미란 (2014). 대학생들은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4(4), 25-65.

- 김미숙 (2016).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임상 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4), 504-513.
- 김미영, 강은희 (2021).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 대인관계 유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1), 199-203.
- 김미영, 정지수, 양창의 (2020).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진로정체감,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6), 1267-1284.
- 김미옥 (2016).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6), 609-617.
- 김미정, 김문옥 (2021). 간호대학생의 삶의 만족 영향요인: 상대적 박탈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859-871.
- 김미정, 하미경 (2020).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학회지*, 1(1), 21-37.
- 김병수 (2018).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상태 인식과 자기효능감이 친밀한 관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 59-65.
- 김보경, 김윤수 (2021).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6(2), 238-245.
- 김선경, 강혜영 (2011). Holland 개인 흥미-학과 일치도와 학과 적응도와의 관계: 이공계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75-193.
- 김선정, 박수진 (2020). 여대생의 분노, 자기효능감, 식이태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4), 69-83.
- 김성경 (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 김소명, 박상연 (2014).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6), 3409-3421.
- 김수울 (2016).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2), 210-219.
- 김수울 (2017). 자기효능감, 긍정적 사고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12), 435-444.
- 김수울 (2018). 간호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1), 435-444.
- 김수울, 김소명 (2015).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3), 452-462.
- 김수울, 김소명 (2016).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3), 1717-1727.
- 김수울, 김소명 (2022).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Nursing & Health Issues*, 27(1), 51-58.
- 김수정 (2022). 세대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 그리고 MZ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35(1), 29-58.
- 김순희, 이창은 (2011). 미용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7(6), 1138-1149.
- 김슬기, 오승은 (2022). 간호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이 간호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7(1), 121-127.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11(2), 1-19.
- 김영대, 김다혜 (2023). 물가 오르고 취업 어렵고 경제고통지수 ↑. 마이더스, 4, 66-67.
- 김영명 (2011). 한국 정치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서설: 분단, 압축성장, 단일사회 문화. 비교민주주의연구, 7(1), 5-35.
- 김영미, 김명희, 서수진 (2012). 무용전공 대학생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효능감 및 공연불안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26, 1-15.
- 김영희 (2009).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급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6(3), 307-315.
- 김용준, 윤천성 (2016). 전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취업스트레스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7), 425-453.
- 김우성, 허은정 (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31-53.
- 김유성, 민희정 (2021). 대학생의 자기자비와 메타인지의 관계에서의 자기효능감과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3), 339-365.
- 김유진, 김현영 (2018).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미래교육연구, 8(2), 51-76.
- 김윤덕, 김연주, 변희원, 김경필, 유종환, 윤상진 (2022). [2022 젠더리포트] 젠더갈등 뒤엔 세대 불평등... “기성세대가 기회 빼앗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DXQ65M25DNEHNGCZSBKFT23RDM/
- 김윤선, 김복란 (2014). 춘천지역 대학생의 문제유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식품영양과학지, 43(6), 934-942.
- 김윤영, 최정준, 박효석, 장은수 (2019).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학업소진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3(4), 109-119.
- 김은주 (2104).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목표동기, 자기주도 학습,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2), 303-326.
- 김은혜, 성지민 (2014). 보건·복지 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 공감력, 자기효능감의 관계.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5), 2769-2779.
- 김은희, 서순림 (2014).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피로와 자기효능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3), 328-336.
- 김의연, 유효숙 (2018). 한국, 일본, 중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관리행동과 내용에 대한 비교연구. 교육문화연구, 24(1), 193-211.
- 김정숙, 김성의 (2019). 일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복합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9(5), 48-54.
- 김정숙, 서리나, 탁정미 (2006).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9(4), 5-14.
- 김중운, 양민정 (2014). 대학생의 애착과 자기 효능감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4(2), 283-299.
- 김종임 (2022).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8), 44-54.
- 김중학, 최보영 (2015). 대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7(1), 135-162.
- 김주선, 손현 (2020). 대학생의 불안애착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2(1), 63-78.
- 김주현, 한상완, 주원, 장후석, 백홍기 (2013).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의 특징: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저소득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 VIP Report, 522, 1-15.
- 김주혜 (2012). 부산장신대학교 재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과적응과의 관계. 부산장신논총, 12, 471-486.
- 김중경, 김원중, 이선주 (2020).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7), 120-126.
- 김지윤, 이기학 (2017).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흥미유연성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6(3), 107-124.
- 김지혜, 전해욱 (2016).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25(2), 123-132.
- 김혜란, 최은영, 강희영, 김성민 (2011). 시물레이션기반 응급간호교육을 받은 간호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 학습태도 및 수업만족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5-13.
- 김현경 (2020). 대학생 외모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생활태도의 매개효과.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4(2), 105-115.
- 김혜옥, 조혜지 (2021).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9(5), 489-500.
- 김혜정 (2020).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8), 315-322.
- 김홍중 (2009). 유희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 사회와 이론, 14, 173-212.
- 김환, 임진희 (2017).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아카이빙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52), 315-342.
- 김효정, 정미애 (2010).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43-50.
- 김희수, 최정선 (2017). 예비유아교사의 행동역제/활성화체계,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2(6), 169-184.
- 김희수, 홍성훈 (2006).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인지양식과 자기효능감 및 학업적응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37(2), 1-21.
- 나성윤, 조혜정 (201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를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시설환경,

- 17(1), 121-130.
- 나예슬, 김원중 (2019).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의사소통유형과 부모-자녀 관계의 질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28, 31-59.
- 남윤정, 박성희 (201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인지, 정의, 행동 차원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5), 45-62.
- 남희은, 이미란, 배은석, 김선희, 백정원 (2014). 대학생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성향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 연구*, 8(2), 227-255.
- 노지영, 박수진, 배두이 (2012).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동서간호학회연구지*, 18(2), 88-94.
- 도은수, 서영숙 (2013). 학생의 성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기본간호학회지*, 20(2), 129-136.
- 라미진 (2022). 개인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역할 외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5(9), 1719-1740.
- 류지영 (2010). 고교 조기졸업 대학생들의 성격유형과 기질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청소년학연구*, 17(2), 59-86.
- 마여연, 김혜란 (2015).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3(4), 87-99.
- 문미영 (2020).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3), 277-292.
- 문양호, 김완일 (2006). 사관생도와 대학생의 스트레스 분석 및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의 관계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485-501.
- 문태형 (2013).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지능 및 자기결정성 동기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 *아동교육*, 22(4), 131-145.
- 민소영, 정승교 (2006). 간호학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간호학회지*, 15(3), 299-307.
- 민희홍 (2019). 학제에 따른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 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19(4), 525-533.
- 박경미, 이진령, 강승희 (2020). 전문대학생의 성향적 낙관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3), 1115-1137.
- 박경연 (2012).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손씻기와 실천에 대한 지각된 통제행위와 자기효능감의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19(3), 313-321.
- 박동영 (2010). 태권도 전공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태도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9(4), 319-331.
- 박동영 (2020).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자아탄력성이 현실충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4), 648-657.
- 박동영, 김미조 (2017). 간호대학생의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6), 561-570.
- 박미라, 윤지원 (2021). 대학생의 교수-학생상호작용, 교우관계, 자기효능감이 대학 물입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 융합*, 43(12),

- 325-338.
- 박미정, 전원희 (2016).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희망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1), 34-41.
- 박미향 (2019). 간호학생의 문제해결과정,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631-649.
- 박병량 (1984). 대학진학의 관련요인 분석. *교사교육연구*, 8, 27-59.
- 박선일, 이경미 (2012).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학습태도, 자기효능감 및 자기개발의지의 관계.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3(1), 1-12.
- 박선정, 김명중, 곽근혜 (2017). 간호대학생의 분만시뮬레이션 교육이 학습태도와 비판적사고 성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1), 293-304.
- 박성희, 변은경 (2020).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표준주의 지식, 인지도가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7), 127-135.
- 박소영 (2019).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돌봄능력,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10), 395-403.
- 박순주 (2017). 간호대학생의 손씻기 지식과 수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행위통제의 조절 및 매개효과. *기본간호학회지*, 24(3), 219-229.
- 박순주, 배다은 (2015).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대인불안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0), 305-315.
- 박신영, 윤경희 (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관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8), 405-434.
- 박승관 (2003).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변동. *한국정치연구*, 12(1), 153-179.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주, 장문영 (2015).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특성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13(2), 43-51.
- 박윤미, 양지인 (2019). 취업스트레스가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검증. *취업진로연구*, 9(2), 55-77.
- 박의정, 정경순 (2018).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의 관계. *대한통합의학학회지*, 6(3), 113-121.
- 박의정, 정경순 (2020).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능력. *대한통합의학학회지*, 8(3), 153-162.
- 박재완 (2017). 압축산업화 이후 한국경제: 과제와 개혁 기조. *한국경제포럼*, 10(2), 1-37.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 10-34.
- 박중희, 이재창 (2018).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 709-718.
- 박주영, 우정희, 김두리 (2017). 간호대학생의

-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8(5), 107-115.
- 박지원, 김춘자, 김용순, 유문숙, 채선미, 안정아, 유혜라 (2012).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4(3), 223-231.
- 박창식, 이형수 (2011).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효과.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18(2), 63-71.
- 박창식, 이형수, 조병모 (2011).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5(4), 325-349.
-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4), 621-631.
- 박형숙, 윤정미, 이선녀, 이숙련, 이미순 (2018).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3(1), 35-45.
- 박효정, 박주희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2(3), 21-39.
- 박효진, 유은주, 이화명 (2020).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310-322.
- 방소연, 김순이, 양경미 (2010). 대학생의 섭식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2), 265-271.
- 배윤경, 류소연, 한미아, 최성우 (2015).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련성. 대한보건연구, 41(2), 99-109.
- 변은경 (2019). 간호여대생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1), 661-671.
- 변은경, 김미영 (2022).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1), 167-174.
- 변은경, 안은선 (2019).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유머감각, 인지적 정서조절과 대학생 활적응과의 관련성.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8), 75-84.
- 부성숙, 김반재 (2012). 예비 유아교사의 정서 지능이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4), 649-664.
- 사람인 (2022). 인재 유출 심각...기업 84.7%, 1년 이내 조기퇴사자 발생! 사람인 취업 뉴스.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8787&listType=news
- 서영숙, 정추영 (2017).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5(4), 1040-1047.
- 서요한 (2018).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과 내현적 자기에,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과의 인과적 관계.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5(4), 1156-1174.
- 서우석 (2015).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 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8(4), 149-171.

- 서인균, 이연실 (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 및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2(1), 117-147.
- 서재영, 한은정 (2022). 청년세대가 보는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한 인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40(1), 373-397.
- 석소현, 신동수, 권자연, 김귀분 (2005).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동서간호학연구지, 11(2), 101-109.
- 석소현, 신동수, 김귀분 (2006).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5(4), 475-481.
- 석소현, 신동수, 오희, 김호미, 김귀분 (2005).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동서간호학연구지, 11(5), 51-57.
- 설진선, 김수연 (2020). 직장 내 세대갈등 해결을 위한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역할은 무엇일까?: X·Y세대 직장인들과의 질적 인터뷰를 통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59(1), 251-290.
- 성미혜 (2005). 대학생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2), 316-327.
- 성원경, 김진영 (2015).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과 교직인·적성의 관계 연구. 직업교육연구, 34(5), 55-71.
- 손강숙, 주영아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온라인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7(2), 107-130.
- 손정희, 김찬석, 이현선 (2021). MZ세대의 커뮤니케이션 고유 특성에 대한 각 세대별 반응 연구: MZ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77, 202-215.
- 손향숙 (2004).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진로 의사 결정 유형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2, 61-79.
- 손혜경 (202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인간호과학술지, 14, 1-9.
- 송미령, 김은경, 유수정 (2010).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우울 의심노인과 정상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4, 61-80.
- 송소현, 장윤경, 김주형 (2009). 대학생의 통제감, 사회비교추구성향 및 자기효능감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3(1), 27-39.
- 송연선, 송현정 (2015). 지방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3), 21-42.
- 송위진 (2009). 2000년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창조'와 '통합'의 지향. 과학기술학연구, 9(2), 1-27.
- 송지은, 이정윤 (2013).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 연구. 상담학연구, 14(4), 2107-2123.
- 신관호, 이충열, 김준원 (2001). 한국의 자연실업률 측정과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률 상승에 대한 이해. 한국경제의 분석, 7(1), 1-55.
- 신기수, 조미경 (2020).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Crisisonomy, 16(12), 123-132.
- 신승옥 (2018).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도에 주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8(6), 85-91.
- 신우리, 송헌재, 전병힐 (2020).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KERI Insight, 20(6), 1-20.
- 심미영, 이들녀, 김은희 (2016).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관계: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227-236.
- 안세운 (2017).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정상담학연구, 2(2), 75-94.
- 안세운, 김병석 (201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통합사회인지 진로모형 구조분석. 교정상담학연구, 4(2), 51-77.
- 안홍순 (2016).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사회복지정책, 43(3), 59-83.
- 양경희, 이정란, 박복남 (2012).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1), 5-13.
- 양선이 (2014).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7), 334-345.
- 양승경, 정미라 (2016).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6(11), 613-629.
- 양정남, 최은정, 문영란, 박건영, 박순희 (2011). 자기효능감, 사회복지옹호태도가 사회복지전공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16, 24-47.
- 양혜주 (2013). 전문대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사고개발, 9(3), 103-118.
- 어용숙, 이경리, 최송실 (2011).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및 부모와의 독립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6), 3073-3084.
- 연문희 (1985). 청소년들의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상담방법 연구. 교육연구논총, 7(1), 171-193.
- 오선영, 왕수경 (2012).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대학생의 흡연, 식습관, 영양지식, 비만도: 대전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연과학, 23, 141-157.
- 오원옥 (2011).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7(4), 222-229.
- 오유미, 문혁준 (2018). 예비 영유아교사의 공감능력,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4), 89-110.
- 오윤정 (2017).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5(7), 307-317.
- 왕희정, 정선아, 박효은, 유혜숙, 배연의, 김지영 (2016).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9), 619-627.
- 우복진, 이해경 (2019). 대학생의 건강지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6(4), 1290-1302.
- 우영지, 이기학 (2011). 여대생의 문화성향 군집에 따른 다중역할계획태도, 성취동기,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05-425.
- 원영희, 한정란 (2019). 세대갈등과 세대통합에 대한 고찰: 노년교육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노년교육연구, 5(1), 63-85.
- 위성욱 (2016). 여대생의 교우관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습상황에서의 무기력행동과의 관계.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9), 277-286.
- 유경희, 양진향 (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3), 435-442.
- 유문숙, 손연정, 유일영, 홍성경 (2006).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수기능력과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3(3), 343-350.
- 유미옥, 김혜영, 임은미 (2019).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0(3), 695-718.
- 유미진, 한혜숙 (2021). 간호대학생의 대인불안과 의사소통능력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7(3), 298-305.
- 유연화, 서정연 (2020).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기본심리욕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9), 1115-1134.
- 유은주, 김순구, 정숙희 (2013). 미용관련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1(9), 279-287.
- 유정임, 홍혜영 (2020).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이버 불링 주변인으로서의 방어행동 간의 관계: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1647-1668.
- 유지은 (2021). 기독교교육전공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전공만족도, 취업 의지의 관계. 성경과신학, 98, 71-96.
- 유창호, 장석진 (2019).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 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478-494.
- 윤갑정, 우호정 (2012). 예비보육교사의 개인적 변인, 전문성 발달 목표와 걱정이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3), 161-185.
- 윤미진, 권영채 (2018).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의사소통 능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6(11), 433-440.
- 윤순영, 김민숙 (2014).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간호윤리 가치관 관련성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363-372.
- 윤신영 (2020.09.07.). '비난'보다 '이해' 먼저 하는 방역 대책이 필요한 이유.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9568>
- 윤정애, 윤영숙 (2011). 치과위생사와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방사선안전관리 지식 및 태도에 대한 비교. 한국치위생학회지, 11(5), 729-739.
- 이경민, 신민철 (2009). 무용전공 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행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논문집, 59, 169-184.
- 이경임, 정경순 (2017).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

- 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 대한통합의학회지, 5(3), 91-99.
- 이경희, 방은령 (2011). 대학생의 우울과 자기 효능감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교정부학보, 15(1), 325-348.
- 이기라 (2021). 지배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 통치성: 1990년대 한국의 '세계화 이데올로기'와 '영어 열풍' 사례 분석. 담론201, 24(3), 231-264.
- 이기형 (2000). 제2장. "한류현상"의 비교문화적인 함의에 관한 연구: 한류를 둘러싼 담론과 문화논리에 대한 고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54-74.
- 이나영, 유지영 (2019). 발달단계별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학연구, 57(3), 119-145.
- 이내영, 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40, 37-83.
- 이려정 (2011). 대학생의 여가활동과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간 영향연구: 동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3(7), 489-509.
- 이만중 (2006). Analysis of crimes in Korea and preventive measures. 한국공안행정학회보, 0(23), 533-560.
- 이명심, 하대현 (2022).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8), 341-364.
- 이미라, 전현숙 (2019). 융복합시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융합정보논문지, 9(5), 55-64.
- 이미란, 이해원, 탁정화 (2017).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과 그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 491-512.
- 이민하 (2023). MZ세대의 아트페어에 대한 인식과 행동 특성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7(2), 15-27.
- 이병인, 이지효 (2009). 예비 유아특수교사들의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유아특수교육연구, 9(3), 61-81.
- 이병준, 이지인, 허은정 (2022). 세대 간의 문화 갈등, 융합 그리고 학습: 문화예술기관 조직의 사례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7(3), 221-255.
- 이삼식 (2006).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111, 5-17.
- 이선경, 박선웅, 팔로마베나비데스, 허용희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시교차적 메타분석(1999-20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609-625.
- 이선영, 김윤영 (2016).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4(3), 309-318.
- 이선영, 이정숙, 김소연 (2019).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1), 249-257.
- 이선영, 이정숙, 김윤영 (2017).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5), 401-409.
- 이세진 (2010).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소비성향 연구: 현재의 X세대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23(1), 83-112.
- 이소영, 이명주, 권선화 (2014). 일부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 대처방식. 한국치위생학회지, 14(1), 67-74.
- 이수정 (2004). 여대생의 대인불안, 자기효능감 및 신체상과의 관계 연구. 여성연구논총, 19, 161-181.
- 이숙정 (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5), 235-253.
- 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 이순례, 김형수 (2017).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1(2), 157-183.
- 이승현, 배정미 (2018).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서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7(3), 293-302.
- 이승희, 박길순 (2011). 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복식문화연구, 19(5), 1075-1087.
- 이시은 (2009).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81-500.
- 이영만 (2001). 교육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양식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9, 97-132.
- 이영숙 (2021).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5), 3027-3040.
- 이영은, 정귀임, 권수혜, 안은선, 태영숙 (2018).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전인간호과 학연구소, 11, 20-30.
- 이용관 (2018).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요인 변화 분석. 보건사회연구, 38(4), 465-491.
- 이원령, 이한우 (2008). 예비특수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에 관한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24(3), 123-142.
- 이유나 (2016). 대학생 초보운전자의 심리적 요인과 안전운전행동간의 관계.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 8(1), 1-10.
- 이유리, 김남중 (2013). 여자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8), 97-120.
- 이유진, 김정미 (2013).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애착, 자아분화, 학과만족도 간 관계. 유아교육연구, 33(2), 145-162.
- 이윤희, 안나 (2022).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2(11), 33-41.
- 이인영, 박혜경 (2020). 문화를 비추는 거울: 대중음악 선호에 반영된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221-257.
- 이재명 (2009).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2(1), 1-18.
- 이정미, 조영주 (2017). 대학생 자원봉사 참여 동기가 자기효능감, 리더십생활 기술을 이중매개로 자원봉사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1(3), 429-458.
- 이정민, 남승미 (2021).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6), 1157-1170.
- 이정숙, 이선영 (2016).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 와 우울과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0(4), 239-248.
- 이정숙, 이영옥, 배한주 (201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4(4), 359-365.
- 이정애 (2013).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인지적 변인 간의 구조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32(3), 97-116.
- 이정인 (200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166-174.
- 이주연, 이기학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서. 진로교육연구, 27(1), 65-81.
- 이지영 (2010).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研究, 18(3), 219-227.
- 이지원, 정향미 (2006). 여대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자기효능감 및 지각된 건강상태의 관계.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8(5), 1807-1816.
- 이지은, 광혜원 (2017). 간호 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조화 간의 관계. 의료커뮤니케이션, 12(1), 31-40.
- 이진숙, 권려원, 이연규, 홍경주 (2020).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회복 탄력성 및 셀프 리더십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융합연구, 4(4), 63-74.
- 이춘엽, 박영주 (2018). 대학생의 감각처리특성에 따른 여가활동과 자기효능감.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8(3), 13-23.
- 이춘엽, 박영주 (2022).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및 시간관리가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6(4), 285-295.
- 이하정, 박미라, 윤지원 (2022).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학풍토, 교수-학생상호작용, 직업탐색,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3), 1737-1750.
- 이한우, 이미희 (2013). 대학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가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9(3), 181-200.
- 이현숙 (2015). 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복지, 17, 89-100.
- 이현숙 (2016).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스트레스 정도,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4), 163-172.
- 이현숙 (2017).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스트레스 정도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하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 139-148.
- 이혜경, 이계희, 서부덕, 권경희 (2017). D 지역 대학생의 음주정도와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2), 1055-1067.
- 이혜원, 탁정화, 이미란 (2017). 예비유아교사의 그릿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 5요인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유아교육연구, 37(3), 249-268.
- 이효정, 이경주, 광소영 (2021). 간호대학생의 게임중독,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

- (3), 101-109.
- 임기태 (2020). 대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분석. *고등교육*, 3(1), 55-75.
- 임미희, 구인영, 최혜숙 (2011). 치위생화 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의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11(5), 811-822.
- 임민숙, 이상민 (2020).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전공선택동기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1(5), 71-84.
- 임선영 (2010).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 의 관계. *김천과학대학 논문집*, 36, 43-50.
- 임순연 (2012).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통제소재,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학회지*, 12(2), 181-188.
- 임순연, 조영식, 배현숙 (2011).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11(3), 313-323.
- 임채식 (2017).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17(1), 191-197.
- 임현주, 황세현, 이지영 (2021). 치위생과 학생들의 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극복력의 관계.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9(4), 18-24.
- 임현진 (2005). 한국사회의 세계화와 다중적 근대화.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95-212.
- 장경숙, 최소라, 이자옥 (2020). 간호대학생의 감염관리 표준주의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자기효능감이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743-763.
- 장은주, 이숙정 (2016). 전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산업교육연구*, 33, 75-102.
- 장인순, 박승미 (2021). 자기효능감,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근관절건강학회지*, 28(2), 121-129.
- 장후석 (2002). 월드컵의 성과와 평가. *한국방송광고공사*, 7.
- 장휘숙 (2008).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시작시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4), 109-126.
- 장희정 (2015). 간호대학생의 수면, 자기효능감, 직관과의 관계. *한국간호시물레이션학회지*, 3(1), 23-31.
- 전대근 (2020). MZ세대의 과시소비성향이 자기사용과 선물 상황에서 의복평가기준에 미치는 영향. *韓服文化*, 23(4), 107-119.
- 전미경, 오재우 (2017).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339-346.
- 전미라, 노정식 (2010). 무용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자기의식과 신체이미지, 자기효능감 및 무용수행 불안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21, 1-20.
- 전미순, 신지수, 손정인, 양선희, 양혜원, 오세라, 위윤지, 유재은, 황은영 (2020).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의 관계. *다문화건강학회지*, 10(2), 1-10.
- 전민경 (2013).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 요인.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4), 119-

- 129.
- 전상진 (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연구학*, 25(2), 193-230.
- 전인희, 조주연 (2016).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다문화건강학회지*, 6(1), 49-60.
- 전재희, 최은희, 김진희 (2020). 간호대학생의 손씻기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손씻기 태도를 중심으로. *근관결건강학회지*, 27(2), 132-141.
- 정경순, 박의정 (2019).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대한통합의학학회지*, 7(4), 253-263.
- 정귀임 (2016). 부산시내 일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전인간호과학학술지*, 9, 55-65.
- 정덕조 (2006). 여대생들의 비만정도가 체중조절 행위, 신체상,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 행위 및 정신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운동과학*, 15(4), 365-376.
- 정미현 (2017). 간호대학생의 인성, 간호전문직관 및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9), 302-314.
- 정선영 (2021). 양육사회화 가치관 변화의 연령, 기간, 세대 효과: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0(2), 55-74.
- 정숙희, 전명희 (2012). 기독교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사회부적응과의 관계: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17(2), 175-200.
- 정순돌, 이아영, 박민선 (2022). 사기업 직장인들의 조직 내 세대갈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동시장에서의 세대연대 모색. *노인복지연구*, 77(4), 195-226.
- 정승교, 김춘길 (2010). 대학생의 우울,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2(1), 41-50.
- 정연재, 주소영 (2019). 대학 신입생의 자기효능감, 목표지향성, 학습참여와 교양교육만족도 간의 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1271-1296.
- 정연재, 주소영 (2022). 이공계 신입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회복탄력성과 교양교육 만족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4).
- 정영희, 송민선 (2018). 간호계열과 비간호계열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우울 및 건강증진 행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3), 290-299.
- 정영희, 임현주 (2012). 부산지역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방사선 이용에 대한 의식도,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2), 81-89.
- 정예슬, 방경숙 (2020). 간호대학생의 다양성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1029-1045.
- 정우식, 김은혜 (2017). 휴먼서비스 분야 전공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18(2), 165-186.
- 정은혜, 임지영 (202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통제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과 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3), 325-340.
- 정인숙 (2018).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학업수행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8(5), 51-58.
- 정효주, 채민정 (2018).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

- 감과 학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8), 403-417.
- 정효진 (2020). 대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세대 담론에 관한 연구: '온라인 토론'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9(4), 229-273.
- 정훈인, 김승현, 홍지은 (2019). 무도 전공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21(3), 93-110.
- 조명숙, 김지홍 (2022).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3), 194-204.
- 조명현 (2021).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7), 587-600.
- 조미경, 장혜영 (2015).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영향 요인.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795-2808.
- 조성연, 이정희 (2014). 예비유아교사의 교육 실습불안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교사이미지의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1), 63-73.
- 조은정 (2003).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도움추구태도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6, 25-45.
- 조진성, 홍혜영 (2018). 대학생의 분리 개별화 수준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4), 5-16.
- 조진희, 진미경 (2018). 대학생의 성격우선순위 유형에 따른 정서,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차이연구. 인간발달연구, 25(2), 145-162.
- 조혜경, 정인숙 (2018). 간호학과 신입생의 의사소통능력,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8(3), 25-32.
- 조혜영, 권희경 (2022). 대학생의 학습역량 및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7), 629-641.
- 주소영, 정연재 (2020). 이공계 신입생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인재 역량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687-708.
- 주영주 (2020).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셀프리더십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4), 745-762.
- 주현정, 전호선, 박미경 (2019).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11), 395-407.
- 주호현, 김덕원 (2017).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1(3), 85-95.
- 지민경 (2009).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흡연지식이 금연지도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학회지, 9(1), 25-34.
- 진은영, 이명인, 김윤이 (2017).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의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4), 317-326.
- 차은정, 이순희 (2016). 대학생의 결핵에 관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이 결핵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5), 2857-2870.

- 채명옥 (2019).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 정체감과 전문직자아개념. *디지털융복합연구*, 17(7), 147-156.
- 최경아, 김혜원 (2016).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와의 의사소통과 부의 정서표현 및 양성평등의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1), 313-340.
- 최금희, 홍민주, 권수혜 (2019).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영향요인: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기본간호학회지*, 26(2), 107-116.
- 최대위 (2020). 라떼는 말이야. 새가정, 67 (730), 15-19.
- 최미숙, 장영호, 윤현경 (2014).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14 (2), 155-162.
- 최순옥, 박진경, 김상희 (201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2), 182-189.
- 최승혜, 이해영 (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808-816.
- 최은영 (2019). 전문대학 신입생의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1), 287-295.
- 최은정, 송윤식 (2012).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연관성. *한국치위생학회지*, 12(3), 485-493.
- 최정명, 김선미 (2021). 정서인식명확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보건의료생명과학논문지*, 9(2), 383-389.
- 최효진, 이은주 (2012). 간호 대학 신입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9(2), 261-268.
- 통계청 (2017.11.07.). 2017 사회조사 결과: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6436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통계청 (2021).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사례. <https://kostat.go.kr/menu.es?mid=b70202040000>
- 통계청 (2023). 성/연령별 실업률. [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onn_path=I2&language=en.
- 하연희, 강신영, 김초롱, 김민정 (2022). 예비 유아교사의 학교만족도, 학업노력 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인문사회* 21, 13(3), 1843-1858.
- 하태희 (2016).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7(3), 763-772.
- 하혜진, 김은아 (2021).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체형불안과 신체이미지의 관계: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211-217.
- 하혜진, 김은아, 김하나 (2021). 산호대학생의 신체이미지,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생활양식에 미치는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3), 361-369.
- 한광석 (2009). 대학생과 기성세대의 정치성향

- 이 이슈관여와 신문분리 및 능동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1), 45-76.
- 한국리서치 (20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 한귀영 (2020).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세대갈등 양상. *동향과 전망*, 109, 68-73.
- 한금선, 박영주, 김근면, 오연재, 진중희, 강현절 (2008).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유형, 자기효능감, 감정조절, 대처방법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7(1), 28-34.
- 한승희 (2019). 한국 재난영화의 정치적 무의식: 2010년대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5(2), 98-116.
- 한승희 (2016).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과의 관련성.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7), 117-129.
- 한승희 (2019).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6), 581-590.
- 한승희, 박선화 (2019).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2), 675-686.
- 한영미 (2020).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5), 367-374.
- 한은경 (2005). 한류의 소비자 지각상 경제적 파급효과: 한류 파생 문화산업 및 한국 소비재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9(3), 325-360.
- 한장현 (2016).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체험형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587-597.
- 한주량, 김장묵 (2017). 보건의료분야 대학생들의 메타인지와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6), 273-282.
- 함연숙, 김화순 (2012). 학제에 따른 졸업학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 비교. *기본간호학회지*, 19(3), 363-373.
- 허은정, 김우성 (2003). 베이비붐세대 가계와 X세대 가계의 소비지출 및 저축. *소비문화연구*, 6(3), 79-97.
- 허재경 (2017.03.31.). 대학생 82.9%, 취업 스트레스에 우울증.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3310861320878>
- 허재홍 (2008). 사회불안 발생과정에 자기효능감과 체험회피가 미치는 영향: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73-1189.
- 현안나 (2018). 예비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가치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공공정책연구*, 35(1), 1-38.
- 홍기석 (2018). 청년실업의 결정요인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24(2), 91-152.
- 홍성례 (2011).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9(6), 71-87.
- 홍성례 (2012).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71-92.
- 홍애순 (2022). 예비유아교사의 자율성지지와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31(2), 277-294.
- 홍영근, 이경숙, 송호준, 백미숙 (2012). 자기초점주의, 특성불안, 자기효능감이 사회공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51(1), 267-286.
- 홍은영, 이은희, 김근면, 전은주, 박빈희 (2017). 대학생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건강관리역량을 중심으로. *재활간호학회지*, 20(2), 129-139.
- 홍정주 (2018). 간호대학생의 간호실무역량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통계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3(8), 123-131.
- 홍찬숙 (2013). 1980~90년대 한국의 저출산 현상: 젠더 불평등 및 그 문화적 의미. *한국여성학*, 29(3), 1-40.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미진, 신유순, 김병수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 수준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17(2), 195-212.
- 황선재 (202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사회과학연구*, 33(2), 149-172.
- 황성자 (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05-213.
- 황소영 (2016). 예비유아교사의 희망과 낙관성,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6), 67-92.
- 황영아 (2018). 한국 성인의 발달과업 인식과 교육요구 분석. *한국성인교육학회*, 21(1), 65-98.
- e-나라지표 (2022). 취학을 및 진학을. [데이터 세트]. https://www.index.go.kr/unity/portal/main/EachDetail.do?idx_cd=1520
- Achterkamp, R., Hermens, H. J., & Vollenbroek-Hutten, M. M. R. (2015). The influence of success experience on self-efficacy when providing feedback through technolog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2, 419-423.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 Aguayo, D., Herman, K., Ojeda, L., & Flores, L. Y. (2011). Culture predicts Mexican Americans' college self-efficacy and college performance. *Journa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4(2), 79-89.
- Åm, O. (2020). Peterson, rand, and antifragile individualism. *The Journal of Ayn Rand Studies*, 20(2), 410-416.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rnett, J. J., Ramos, K. D., & Jensen, L. A. (2001). Ideological views in emerging adulthood: Balancing autonomy and communit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2), 69-79.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 122-147.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self-regul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48-287.
- Bandura, A., Reese, L., & Adams, N. E. (1982). Microanalysis of action and fear arousal as a function of differential levels of perceived self-effica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1), 5-21.
- Brender-Ilan, Y., & Sheaffer, Z. (2019). How do self-efficacy, narcissism and autonomy mediate the link between destructive leadership and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ur. *Asia Pacific Management Review*, 24(3), 212-222.
- Brookes, J. (2015). The effect of overt and covert narcissism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beyo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5, 172-175.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 Cheng, Y. H. A. (2020). Ultra-low fertility in East Asia.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8, 83-120.
- Chow, J. T., Hui, C. M., & Lau, S. (2015). A depleted mind feels inefficient: Ego-depletion reduces self-efficacy to exert further self-contro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6), 754-768.
- Costanza, D., Darrow J. B., Yost, A. B., & Severt, J. B. (2017). A review of analytic methods to study generational differences: Strengths and limitations. *Work, Aging and Retirement*, 3(2), 149-165.
- Dohi, I., & Fooladi, M. M. (2008). Individualism as a solution for gender equality in Japanese society in contrast to the social 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In Forum on Public Policy: A Journal of the Oxford Round Table (Online)* (Vol. 1, No. 12, pp. 1-12).
- Duffy, B., Hewlett, K., Murkin, G., Benson, R., Hesketh, R., Page, B., Skinner, G., & Gorrfrid. (2021). Culture wars in the UK: How the public understand the debate. *Kings College London*.
- Eagly, A. H., Nater, C., Miller, D. I., Kaufmann, M., & Sczesny, S. (2020). Gender stereotypes have changed: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of U.S. public opinion polls from 1946 to 2018. *American Psychologist*, 75(3), 301-315.
- Elias, H., Noordin, N., & Mahyuddin, R. H. (2010).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efficacy in relation to adjust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s*, 4(3), 333-339.
- Elliott, A., & Lemert, C. (2006). The new individualism: *The emotional costs of globalization* (2nd ed.). Routledge.
- Engels, M., Wahrendorf, M., Dragano, N., McMunn, A., & Deindl, C. (2021). Multiple social roles in early adulthood and later mental health in different labour market context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50, 1-13.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 56-12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ecas, V. (1989). The social psychology of self-efficac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291-316.
- Erikson, E. H. (1994). *Identity and the life cycle*. W. W. Norton & Company.
- Gergen, K. J. (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2), 309-320.
- Gurin, P., Gurin, G., & Morrison, B. M. (1978). Personal and ideological asp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Social Psychology, 41*(4), 275-296.
- Han, J., Chu, X., Song, H., & Li, Y. (2015). Social capital, socioeconomic status and self-efficacy. *Applied Economics and Finance, 2*(1), 1-10.
- Hasting, R. P., & Brown, T. (2002).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with autism, parental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07*(3), 222-232.
- Hayek, J., Schneider, F., Lahoud, N., Tueni, M., & de Vries, H. (2022). Authoritative parenting stimulates academic achievement, also partly via self-efficacy and intention towards getting good grades. *Plos one, 17*(3), 1-20.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Sage.
- Judge, T. A., Jackson, C. L., Shaw, J. C., Scott, B. A., & Rich, B. L. (2007).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The integral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1), 107-127.
- Kang-Yi, C. D., Grinker, R. R., & Mandell, D. S. (2013). Korean culture and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3*, 503-520.
- Kashima, Y., & Foddy, M. (2002). Time and self: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the self. In Kashima, Y., Foddy, M., & Platow, M (Eds.), *Self and identity: Personal, social, and symbolic* (pp.181-206). Erlbaum.
- Kavanagh, D. J., & Bower, G. H. (1985). Mood and self-efficacy: Impact of joy and sadness on perceived capabiliti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5), 507-525.
- Khalid, S., & Zubair, A. (2014).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creativity among employees of advertising agencies. *Pakistan Journal of Psychology Research, 29*(2), 203-221.
- Klassen, R. M. (2004). Optimism and realism: A review of self-efficacy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9*(3), 205-230.
- Konaszewski, K., Kolemba, M., & Niesiołędzka, M. (2021). Resilience, sense of coherence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stress coping style among university students. *Current Psychology, 40*(8), 4052-4062.
- Kononovas, K., & Dallas, T. (2009).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perceived stress and self-efficacy across Japanese, U.S. and Lithuanian students. *Psychologija, 39*, 59-70.
- Kumar, R. & Uz Kurt, C. (2011).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self efficacy on innovativeness and the moderating impact of cultural dim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Cultural Studies, 4*(1), 1-15.
-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of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159-174.
- Lavolette, E. M., Lebevre M. R., & Brunel, O. (2012). The impact of story bound entrepreneurial role model 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8(6), 721-742.
- Lee, H. C., & McNulty, M. P. (2003). Korea's economic crisis and cultural transition toward individualism.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Cabinet Office*, 71, 1-56.
- Levinson, D. J. (1977). The mid-life transition: A period in adult psychosocial development. *Psychiatry: Journal for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cesses*, 40(2), 99-112.
- Linyan, W., Insoo, O., Mingji, L. (2019).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tudents' stress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subjective well-be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2), 349-376.
- Magaletta, P. R., & Oliver, J. M. (1999). The hope construct, will, and ways: Their relations with self-efficacy, optimism, and general well-be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5), 539-551.
- Masud, H., Ahmad, M. S., Jan, F. A., & Jamil, A. (2016).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academic performance of adolescents: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7(1), 121-131.
- Morton, S., Mergler, A., & Boman, P. (2014). Managing the transition: The role of optimism and self-efficacy for first-year Austral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ists and Counsellors in Schools*, 24(1), 90-108.
- Natovová, L. & Chýlová, H. (2014).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well-being and behavioural makers in managing stress at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in Education and Science*, 7(1), 14-18.
- OECD.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21_b35a14e5-en
- Page, M. J., McKenzie, Bossuyt, P. M., Boutron, I., Hoffmann, T. C., Mulrow, C. D., Shamseer, L., Tetzlaff, J. M., Akl, E. A., Brennan, S. E., Chou, R., Glanville, J., Grimshaw, J. M., Hróbjartsson, A., Lalu, M. M., Li, T., Loder, E. W., Mayo-Wilson, E., McDonald, S., McGuinness, L. A., Stewart, L. A., Thomas, J., ... Moher, D. (2020). The PRISMA 2020 statement: An updated guideline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88, 1-11.
- Park, J. H., & Kwon, Y. I. (2009). Parental goals and parenting practices of upper-middle-class Korean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7(1), 58-75.
- Park, Y., Kim, T-S., & Park, S. W. (2016). Change in goal orientation of Korean high school athletes: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1999-2014.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4, 342-347.
- Peng, L. & Luo, S. (2021). Impact of social economic development on personality traits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A cross-

- temporal meta-analysis, 2001-2016.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1, 1-11.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1), 19-38.
- Roisman, G. I., Masten, A. S., Coatsworth, J. D., & Tellegen, A. (2004). Salient and emerging developmental task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Child Development*, 75(1), 123-133.
- Rudolph, C. W., Costanza, D. P., Wright, C., & Zacher, H. (2020). Cross-temporal meta-analysis: A conceptual and empirical critique.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5(6), 733-750.
- Saligumba, I. P. B., & Tan, D. A. (2018). Gradual release of responsibility instructional model: Its effects on students' mathematics performance and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y Research*, 7(8), 276-291.
- Scholz, U., Doña, B. G., Sud, S., & Schwarzer, R. (2002). Is general self-efficacy a universal construct? Psychometric findings from 25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8(3), 242-251.
- Schönfeld, P., Brailovskaia, J., Bieda, A., Zhang, X. C., & Margraf, J. (2016). The effects of daily stress on positive and negative mental health: Mediation through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16(1), 1-10.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hiner, R. L., & Masten, A. S. (2002). Transactional links between personality and adaptation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80-588.
- Siddiqui, S. (2015). Impact of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an Psychology*, 2(3), 5-16.
- Sim, H. S., & Moon, W. H. (2015).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stress, depression and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8(35), 1-8.
- Sousa, C. M. P., Coelho, F & Guillaumon-Saorin, E. (2012). Personal values, autonomy, and self-efficacy: Evidence from front-lin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20(2), 159-170.
- Soysa, C. K., & Wilcomb, C. J. (2015). Mindfulness, self-compassion, self-efficacy, and gender as predictors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well-being. *Mindfulness*, 6, 217-226.
- Tam, C. L., Chong, A., Kadirvelu, A., & Khoo, Y. T. (2012). Parenting styles and self-efficacy of adolescents: Malaysian scenario. *Global Journal of Human Social Sciences*, 12(14), 19-25.
- Twenge, J. M. (1997a).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A meta-analysis. *Sex Roles*, 36(5-6), 305-325.
- Twenge, J. M. (1997b). Attitudes toward women, 1970-1995: A meta-analysi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1), 35-51.
- Twenge, J. M. (2000). The age of anxiety? The birth cohort change in anxiety and

- neuroticism, 1952-199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1007-1021.
- Twenge, J. M. (2001). Changes in women's assertiveness in response to status and roles: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1931-199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33-145.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1). Age and birth cohort differences in self-esteem: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4), 321-344.
- Twenge, J. M., Campbell, W. K., & Freeman, E. C. (2012). Generational differences in young adults' life goals, concern for others, and civic orientation, 1966-2009.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5), 1045-1062.
- Twenge, J. M., Konrath, S., Foster, J. D., Campbell, W. K., & Bushman, B. J. (2008). Egos inflating over time: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76(4), 875-902.
- Wang, X., Wang, Y., & Ye, Y. (2023).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predicts e-learning engagement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16.
- Wright, B. J., O'Halloran, P. D., & Stukas, A. A. (2016). Enhancing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An experimental comparison of psychological technique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s*, 87(1), 36-46.
- Wuepper, D., & Lybbert, J. L. (2017). Perceived self-efficacy, pov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Resource Economics*, 9, 383-404.
- Xin, Z., Zhang, L., & Liu, D. (2010). Birth cohort changes of chinese adolescents' anxiety: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1992-2005.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2), 208-212.
- Yuan, M., Spadaro, G., Jin, S., Wu, J., Kou, Y., Van Lange, P. A. M., & Balliet, D. (2022). Did cooperation among strangers decline in the United States?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of social dilemmas (1956-2017). *Psychological Bulletin*, 148(3-4), 129-157.
- Yusuf, M. (2011). The impact of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 2523-2626.

논문 투고일 : 2023. 06. 29

1 차 심사일 : 2023. 07. 03

게재 확정일 : 2023. 08. 16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of Korean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1999-2022

Sujin Cho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utilized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to explore shifts in self-efficacy level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from 1999 to 2022. We expected that increases in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s, narcissism levels among students, and individualism in Korea might have positively influenced the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over the years. Conversely, growing economic disparities, decreasing class mobility, and the increasing instability of job markets might have had negative effects on self-efficacy. To investigate this, we analyzed 293 self-efficacy studies involving Korean college students published between 1999 and 2022, encompassing a total of 88,904 participants. Our criteria included studies that used the three most prevalent self-efficacy scales in Korea, focused solely on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cross-sectional with a one-time self-efficacy measurement, and provided essential statistics for our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self-efficacy levels of Korean college students over the observed period from 1999 to 2022. Additionally, we examined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various social indicators from different time points (20, 15, 10, and 5 years prior, as well as the year of data collection). Findings revealed that both birth rate and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 were consiste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while gross national income was positively correlated. This study is the first to assess Korean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levels using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offering foundational knowledge for implementing such analytical methods for subsequent research and providing an indirect assessment of the generational gap theory.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elf-efficacy, cross-temporal meta-analysis, Korean college students, birth rate,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 gross national income